



서경대신문

1955년 5월 23일 창간
발행인·김범준 / 주간·방미영
편집장·이예은 / 인쇄인·발해기획
서울시 성북구 서경로 124 (02713)
전화·940-7257 / www.skpress.org

사회 >> 3면

극단으로 치닫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기획 >> 4면

우리 학과를 소개합니다!

현장르포 >> 5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한글 이야기

제573호

2023년 10월 26일(목)

2분기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 시행... 이번 학기 주목할 점은?



지난 10월 4일, 2023학년도 제2차 전체 학생대표자회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오후 6시 30분 문예관 문예홀에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학생회비 결산 보고를 비롯해 공약 이행 현황 등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됐다. 회의에 소집된 대상은 전체 학생대표자회의의 구성원 즉 학과별 학생회인원, 과대표, 중앙운영위원회 등 약 250명이다.

식순은 사무 보고, 활동 보고, 공약 보고, 기타 및 건의 안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사무 보고에서는 액셀 파일을 첨부해 대표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후 활동 보고가 이뤄졌는데, 정책과 문화 복지 순으로 발표됐다.

정책 보고에서는 중앙운영위원회 조직개편, 천원의 아침밥, 매점,

2115 및 헤인관 엘리베이터 대기 유도선 설치 현황 등이 발표됐다. 정책 보고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2115 및 헤인관 엘리베이터 대기 유도선 설치'다. 위로 총학생회는 "공사 업체와 학교의 금액 조율로 인한 마찰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줄서기 캠페인 또한 시행할 예정", "빠른 시일 내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밝혔다.

이후 문화, 복지 분야 발표가 이어졌다. 해당 보고에서는 동아리 알림제, 대동제, 의료 및 교육 제휴 등 1학기부터 진행될 다양한 행사 및 제휴에 관련된 내용을 알 수 있었다.

그다음으로 공약 보고가 이어졌다. 공약 보고에서 주목할 점은 '노후화 사물함 교체 및 수리'다. "사물함 교체는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며 "노후 상태가 심각한 복약관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교체하겠다" 밝혔다. 이외에도 '이마트24 입점', '정수기 추가 설치', '와이파이 속도 개선' 등 "교내 노후 화시설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밝혔다.

기타 및 건의 안건에서는 '대입관 외벽 콘크리트 낙하로 인한 보수 진행 현황', '화장실 내 핸드워시 설치 가능 여부' 등 학교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됐다.

마지막으로 자율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는데, 회의에 참여한 대표자들은 자유롭게 손을 들고 발언권을 가질 수 있었다. 이 시간에는 '셔틀 버스', '학교 잠바 공구 진행 여부', '풋살 리그 개최'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회의가 종료된 뒤엔 학과별 단체 카톡방, 위로 총학생회 공식 인스타그램에 논의 안건들이 업로드 됐다. 전체 학생대표자회의에 관련된 정보를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위로 총학생회 공식 인스타그램(@sku_51st_wiro) 혹은 청운관 7층 총학생회실에 방문해보길 바란다.

2학기의 포문을 연 2023학년도 제2차 전체 학생대표자회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대표자에게 힘찬 박수를 보낸다. 이들이 있기에 더 나은 서경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남은 위로 총학생회의 행보에도 많은 관심 바란다.

이예은 기자
(kosoyi@naver.com)

4년 만에 진행된 2023 서경대학교 청야체전... "최종 우승 학과는 어디?"

지난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약 4일간 진행된 '2023 서경대학교 청야체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에선 족구, 족배구, 피구, 농구, 풋살, 이어달리기, 줄다리기 등 총 일곱 종목이 채택됐다. 풋살은 풋살파크에서 개최됐다. 풋살을 제외한 모든 경기는 교내 스포스퀘어에서 마린경기장에서 진행됐다.

행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8월 21일(월)부터 27일(일)까지 참여 학과(부)를 모집했다. 이후 8월 28일(월)부터 9월 6일(금)까지는 과 학생회 주도 하에 자체적으로 참여 선수를 모집했다. 모집된 학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대진표 및 경기 시간표는 위로 총학생회 공식 인스타그램(@sku_51st_wiro)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청운관 1층 이마

트24 맞은편에 경기 대진표가 붙어 있어,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학우들 또한 실시간으로 경기 스케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사 2일 차인 9월 20일 수요일에는 급작스러운 우천 예보로 인해 모든 경기가 취소됐다. 기상 이변으로 인해 행사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으나, 다행히 행사 3일 차부터는 맑은 날씨로 정상적으로 경기가 진행됐다. 변경된 경기 일정은 학과별 단독방, 위로 총학생회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 순위 산정 방법은 간단했다. 각 종목당 1등 학과에는 50점, 2등은 30점, 3등은 10점의 점수를 부여했으며, 점수 총합이 높은 순으로 종합 순위를 산정했다. 합산된 점수를 바탕으로 종합우승은 군사학과가

준우승은 나노화학생명공학과, 종합 3위는 공연예술학부가 차지했다.

시상식은 행사 마지막 날에 오후 5시부터 진행됐다. 종합 우승한 군사학과에게는 상금 500,000원, 준우승한 나노 화학 생명공학과에 300,000원, 종합 3위를 한 공연예술학부에 200,000원을 지급했다. 종목별 우승학과에는 100,000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우승 현황을 살펴보면 족구 실용음악학부, 족배구 군사학과, 피구 전자·컴퓨터공학과, 농구 나노 화학생명공학과, 발야구 군사학과, 풋살 소프트웨어학과, 줄다리기 나노 화학생명공학과, 마지막으로 이어달리기는 군사학과가 우승을 차지했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앙운영위원회, 단과대 학생회 인원이



동원되기도 했다. 이들은 사전에 안내받은 안전 관리 수칙을 바탕으로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힘썼다.

이번 청야체전은 코로나로 인해 '2019년 청야체전'을 마지막으로 약 4년 만에 개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행사를 주최, 진행한 위

로 총학생회는 "4년 만에 진행되는 행사임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학우분들 그리고 심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예은 기자
(kosoyi@naver.com)

김성민 서경대학원·대일학원 이사장 별세

학교법인 서경대학원과 대일학원을 설립해 후학 양성에 평생을 헌신한 김성민 이사장이 21일 새벽 5시 20분 향년 93세로 별세했다.

1931년 정읍에서 태어난 고인은 1972년 성한학원(서경대학원 전신) 초대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대일고등학교, 은주중학교, 대일관광고등학교, 대일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했다. 1992년에는 학교법인 서경대학원 설립 이사장에 취임해 23년까지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서경대학교를 서울의 대표적인 사학으로 성장시켰다. 이에 국가 교육발전과 창의적 실용 인재를 양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인은 서경대학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교육부의 대학역량단 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 대학에 선정되고 2019년 QS 아시아 대학 순위평가에서 500위권 내에 진입시키는 등 대학의 위상을 드높였다. 2018년에는 해화동 대학로에 융합예술 특성화 캠퍼스인 서경대학교 공연예술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인문, 사회, 이공, 예술을 아우르는 융합형 종합대학교로 교육혁신을 주도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문명숙 여사와 아들 김범준 현 서경대학교 총장, 딸 김현정 씨 등 1남 1녀가 있다. 발인은 23일(월) 오전 5시 30분에 진행됐다. 장지는 전북 정읍시 산내면 선영이다.

서경대 홍보실 제공



가을, 서경대를 물들이다

가을 하늘을 수놓은 2023 서경대학교 청야체전 개막제 '청야풍월(淸夜風月)' 성황리에 마무리...



지난 9월 18일, 교내 스포스퀘어에서 개최된 2023 서경대학교 청야체전 개막제 '청야풍월(淸夜風月)'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제51대 위로 총학생회의 주최로 개최됐다.

'청야풍월(淸夜風月)'에서는 총학생회 이벤트, 동아리 및 소모임의 공연이 이어졌다. 이외에도 생맥주 무료 나눔 이벤트, 푸드 트럭, 플라마켓 행사가 이어지며 행사의 즐거움을 더했다.

푸드트럭에서는 불 초밥, 아이스크림 및 탕후루, 아키소바, 다코야키 등 총 10종류의 음식을 판매했다. 플

마켓에서는 의류,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며 학생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총학생회 부스에서는 생맥주 나눔 이벤트가 진행됐다. 생맥주를 받기 위해서는 학생증 혹은 서경 포탈에 들어가 재학생임을 인증해야 했다. 이벤트는 1,000명 한정 수량으로 지급됐다.

이외에도 인스타그램 스토리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청야체전을 즐기고 있는 사진과 함께 총학생회 공식 인스타그램을 태그하면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이마트24 상품권을 제공했다.

뒤이어 소모임 및 동아리들의 공연도 이어졌다. 헤인관 앞 특설무대에서는 '그라미', 'SDR', 인문대 밴드 소모임 '철인 28호'의 공연이 진행됐다. 이외에도 예술대 학생들의 특별 공연이 펼쳐지기도 했다.

서경대 학생들은 푸드트럭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식을 포장해 특설 무대 앞 삼삼오오 모여 공연을 관람했다. 맛있는 음식과 음악 그리고 선선한 가을 날씨까지 모든 게 완벽했던 순간이었다.

가을 축제는 2023년 처음 진행된 행사다. 그간 1학기 축제가 개최된 후 2학기 축제 부재에 관해 학우들

의 많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 대학 생활의 추억을 한 번 더 쌓을 수 있었다. 즐길거리와 볼거리 그리고 먹을거리까지 넘쳐났던 2023 서경대학교 청야체전 개막제 '청야풍월(淸夜風月)', 앞으로도 이 어질 다양한 행사에도 학우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이예은 기자
(kosoyi@naver.com)

서경대 2024학년도 수시모집 최종 경쟁률 15.46대 1, 높은 경쟁률 보여

지난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약 4일간 진행된 2024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마무리됐다.

이번 수시모집에선 1,354명 모집에 20,927명이 지원하며 최종 경쟁률이 15.46대 1에 그치는 기염을 토했다. 지난해 경쟁률 13.40대 1보다 약 2.06%p 상승한 수치다.

실기 우수자 전형의 실용음악 학부 보컬 전공은 369.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올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논술우수자 전형의 경우 지난해는 교과 60% + 논술 40%로 선발했으나 올해부터는 논술 70% + 교과 30% 선발로 전형 방

법을 크게 바꿨다. 논술우수자 전형 또한 18.4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외에도 실용음악 학부-작곡 전공 92.50대 1 ▲ 공연예술학부 연기 전공 76.20대 1 ▲ 디자인학부-LF_라이프스타일디자인전공 62.92대 1 ▲ 공공인재 학부 경찰행정 26.80대 1 등 모집 단위별로도 치열한 경쟁률을 나타냈다.

서경대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를 거듭하며 실무 중심의 전문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일례로, 국내 최초 현장 실무형 프로젝트 시스템을 교육과정에 도입해 운영하

고 있는데 이외에도 다양한 역량별 비교과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고해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서경대는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지식 기반을 부담 없이 갖출 수 있도록 복수전공, 자기 설계 전공, 융합 전공, 학·석사 연계 과정, 현장실습 학기제 등을 도입, 운영 중이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본교의 행보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바란다.

이예은 기자
(kosoyi@naver.com)



▲ 출처: 홍보실

2023년 2학기 새책 in 캠퍼스 교양과목을 수강하여 **미래유망기술도 배우고 상품도 받자!**

새책 in 캠퍼스 교양과목 4차 산업 분야 최첨단 디지털 학습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기술을 접하며 실용적인 학습 콘텐츠로 구성되었습니다.

신청자격
서경대학교 재학생 누구나 (각 과목당 신청수 35명)

신청방법
9/21(화)~24(목) 서경포탈에서 대입과목 신청

대상과목

교양과목명	주요 핵심 역량
누구나 쉽게 배우는 인공지능	문제해결역량
누구나 쉽게 배우는 인공지능	창의역량
누구나 할 수 있는 나만의 앱 만들기	실용역량
누구나 쉽게 배우는 메타버스	자기개발역량
일찍 만드는 메타버스 공간	대인관계역량

선택평가방식
누구나 부담없이 들을 수 있도록 Pass/Non-pass 방식으로 진행

공상 Apple Watch SE (59,000원)

음상 AirPods 3세대 (59,000원)

음상 갤럭시 베트즈 (29,000원)

수입품 Pass한 학생에 한해 10만원 상당의 상품을 증정하며 수상작을 선별하여 특별 상품 증정

문의 : 당근 2교수 daeyun@skuniv.ac.kr

서경대 '새책(SeSAC) in 캠퍼스' 선정...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장서

2023년 2학기에는 새로운 교양과목이 추가됐다. 교과목은 총 5가지로 △누구나 쉽게 배우는 인공지능(문제해결역량) △누구나 쉽게 만드는 인공지능(창의역량) △누구나 쉽게 만드는 메타버스(실용역량) △함께 만드는 메타버스 공연(자기개발역량) △누구나 할 수 있는 나만의 앱 만들기(대인관계역량)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복합형 디지털 혁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된 것이다.

서경대 학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전공이 아닌 교양 과목으로 개설됐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에 흥미를 갖고 수업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는 학습 콘텐츠로 구성했다. 성적 평가 방식은 Pass/Non-pass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수업을 Pass

한 학생에 한해 10만원 상당의 상품을 증정하며 수상작을 선별하여 특별 상품을 증정한다고 한다.

성공적으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현장실무전문가가 멘토로 나서 주기적으로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예정이다. 더불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에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최종 성과물을 공모전, 전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울러 고도화/시제품으로 제작된 성과물을 이용해 창업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할 예정이다.

서경대학교가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새책(SeSAC) in 캠퍼스' 사업의 운영 기관으로 선정되

며,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전환 예비인재 육성에 앞장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은 전문가 고유의 영역이 아닌 모든 영역에서의 융합의 도구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로 인해, 디지털 세대의 모든 전공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디지털 혁신 인재상이 필요하다. 또한, 예술과 문화산업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국제화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관련 분야의 학생들은 디지털 예술과 관련 기술 및 도구에 능숙해야 미래의 산업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한채린 수습기자
(hanchaerin@skuniv.ac.kr)

네컷만화

권리와 자유의 충돌

카툰 1: "다른곳 가자" "무건 못들었어?" "카툰 2: NO 키조준 NO 시니이조준"

카툰 3: "NO 떼조준" "누구의 권리가 우선일까요?" "카툰 4: "반비가 더위하는데..." "제마인데요?"

사령

10월 26일자로 아래 학우를 임합니다.

- ▶ 임 수습기자 전준혁 (광흥콘 23)
- ▶ 임 수습기자 김경민 (글 비 23)
- ▶ 임 수습기자 이재근 (광흥콘 19)
- ▶ 임 수습기자 음지훈 (경 영 21)

한 눈에 보는 이슈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연예	스포츠
무너진 교권, 바로 세울 수 있을까... '교권 보호 4법' 교권 회복 향한 움직임	하마스 기습공격, 한순간 끔찍한 학살 현장으로 변한 축제... 극단으로 치닫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홍범도 장군 흉상 철수...국방부의 역사 왜곡인가	2분기 합계출산율 0.7명, 출산은 무슨 나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는데...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버 김용호, 부산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한국 종합 '3위'

※ 자세한 내용은 사회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세히 보는 이슈

홍범도 장군 흉상 철수...국방부의 역사 왜곡인가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이 육사에 부적절하다며 철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8월 27일 국방부가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 업적은 인정하지만, 소련공산당 활동에 동조했던 이력은 다르게 평가하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다.

육군사관학교는 북한의 침략에 대비해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호국 간성을 양성하는 특수 학교다. 이의 정체성을 고려했을 때 홍범도 장군 흉상 설치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육군사관학교는 2022년부터 학교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면서 우리나라의 국난극복사, 6·25전쟁 영웅, 육사의 표상, 한미동맹의 가치와 의의를 함께 기리는 방향으로 교내 기념물 재정비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 과정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육사 교내보다는 독립운동의 업적이 가장 잘 선양될 수 있는 독립기념관에 모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국가 보존부와 독립기념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를 이념전쟁과 친일행각으로 부추겨 정정화하는 야당과 시민들의 반응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들은 독립 영웅을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는 동시에 독립운동 업적을 인정한다는 국방부의 모순을 비판하는 반응이다.

이에 9월 13일 역사학계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및 이전 반대를 하며 서울대 관악 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범도가 이끈 부



▲ 출처: 연합뉴스

대는 봉오동전투와 청산리 전투에 참전했고 3.1운동 이후 설립된 대한민국의립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독립전쟁의 주역이라 주장했다. 홍범도 장군이 과거 공산당에 가입한 것은 독립운동하려는 방편이었을 뿐, 지금의 공산당과는 의미가 다르며 역사학계는 국방부에게 역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한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열린 광복군 창군 기념식에서 “일제의 머슴을 하던 이들이 국군의 원조라고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육군사관학교에서 흉상을 철거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정립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의병과 독

립군,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역사적 사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현 정부도 지적했다.

9월 20일, 흉상 철거·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육사는 종합발전계획(중기 발전연구서)의 일환으로 흉상 철거를 결정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종합발전계획 상 흉상 이전과 관련된 내용은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 인터뷰]

- 김태희 (21세), 이채우 (21세)

Q.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김태희). 학교 내의 흉상을 이전하는 일에 정치가와 시민들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이 독립기념관으로 옮겨진다면 더 많은 사람이 흉상을 볼 수 있으니 오히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A. (이채우). 독립운동에 힘쓰신 영웅을 모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육사 종합발전계획에도 없던 흉상 이전을 갑자기 추진한다는 건 친일적인 의도가 잘 보이는 행동입니다.

Q. 홍범도 장군 흉상이 육사에 부적절하다는 국방부의 입장에 동의하시나요?

A. (김태희). 동의합니다. 학교 내의 흉상 철거나 이전은 학교가 결정할 일입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한다고 국방부를 친일파라 몰아가는 것은 너무 단순한 시각입니다.

A. (이채우). 동의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흉상 철거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 영웅을 공산당이라 모함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방부가 이런 입장문을 낸 것은 옳지 않습니다.

김나연 수습기자
(nykim0130@skuniv.ac.kr)

무너진 교권, 바로 세울 수 있을까... '교권 보호 4법' 교권 회복 향한 움직임



▲ 출처: 뉴시스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 1학년 담임 교사 A씨가 교내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A씨는 2년 차인 새내기 교사로,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교단의 공분을 샀다. A씨의 사망 이후 교사들은 동료 교사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거리로 나섰다. 자발적으로 거리에 모인 교사들은 국회 앞에서 토요 집회를 이어갔다.

서이초 교사의 49재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두고도 교사들의 집단적 선택 소식이 연이었다. 8월 31일에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 교사 B씨가

경기 고양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바로 다음 날 전북 군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C씨에 이어, 이를 뒤 경기 용인의 고교 교사 D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49재인 9월 4일에도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한 제주도교육청 과장 E씨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사흘 뒤에 대전과 청주에서도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했다. [출처: 뉴시스]

앞서 2021년 6월과 12월, 경기 의정부 호원초에 근무하던 동료 교사 두 명이 잇따라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교권 및 교사 인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

다. 숨진 교사들을 추모하기 위해 학교 앞에는 화환이 줄지어 늘어섰다. 교사들은 진상규명과 교권 보호를 촉구하는 시위에 나섰다.

한편 지난 9월 21일,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권 보호 4법에는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이 담겼다. 교육계에서는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안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또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를 골자로 한다.

교권 침해는 초·중·고등학교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약성 민원에 시달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역시 시급한 상황이다. 실추된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외침과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봤다.

[시민 인터뷰]

- 김주민 (가명, 23세 유치원 부담임교사)

Q. 공교육 멈춤의 날,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A. 이전에는 뉴스와 달리 평소랑 똑같아서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저 등 교사 C씨에 이어, 이를 뒤 경기 용인의 고교 교사 D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49재인 9월 4일에도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한 제주도교육청 과장 E씨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사흘 뒤에 대전과 청주에서도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했다. [출처: 뉴시스]

Q. 교사로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A. 민원이 가장 힘들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예쁜데 민원으로 인해 지칩니다. 언행 하나하나 신경을 쓰게 됩니다. 아이가 잘못했는데도 훈육을 안 해서 사과도 안 하고 적반하장인 경우, 정말 난감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에게서 배워 똑같이 따라 합니다. 유치원과 가정에서의 훈육이 너무 다를 때 아이들도 그걸 알고 마음대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Q.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선생님들께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A.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때 일차적으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이 아니라도 자료를 남기고 수사를 받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나였으면 견딜 수 있을 겁니다. 마음대로 안 듣는 이유로, 악의적으로 신고하면 그냥 그대로 폄하 없이 당하는 거 아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유치원에서조차 보호해 주지 않으면 낙인찍혀 중도 퇴사하게 되는 건 아닐지 불안합니다. 당당히 아니라고 하면서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걱정도 됩니다. 선생님들끼리는 종종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을 정도도 심적 부담이 큼니다.

저희 유치원에서는 유치원원이 제공되어 학부모에게 개인 전화번호가 공개되지 않는데 제공이 안 되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공기를 구매합니다. 개인 번호를 비공개하는 것도 하나의 보호 장치가 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송민경 기자
(tilldawn012@skuniv.ac.kr)

2분기 합계출산율 0.7명, 출산은 무슨 나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는데...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어요. 와우!" 한국의 작년 하반기 출산율이 0.78%임을 들은 캘리포니아대 법대 명예교수 조앤 윌리엄스의 반응이었다. 이는 EBS 다큐멘터리 <K-초저출생 10부 미래에서 온 사람들>의 한 장면으로 SNS를 뜨겁게 달궜다. OECD 국가별 평균 출산율은 1.58명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분기 출산율인 0.7 명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타 도시보다 청년 인구가 23%가 더 많은 서울의 출산율은 그보다 더 아래 0.53명으로 나온다. 한 아이의 출산 소식이 두 가구가 모여야 들리는 것이다. '지방 학교의 소멸', '인구로 인한 국가 소멸' 여러 이유에도 현재는 무엇 때문에 아이를 낳기를 주저하는 걸까.

결혼 긍정화는 청년은 36.4%이다.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남녀를 불문하고 결혼자금 부족을 1순위로 꼽고 그 뒤로는 결혼의 필요성을 못느낀, 출산 양육 부담 등으로 이어졌다. '결혼 후 자녀 기질 필요 없음'에 대한 질문으로는 여성은 65%가 남성보다 43.3%가 기질 필요 없다고 긍정했다. 과거 결혼 이후 출산이라는 사회적 맥락이 달라진 것이다. 반대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질문에 긍정한 이들은 10%가 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청년 세대가 결혼을 필수로 생각하지 않을 뿐 결혼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결국에는 결혼하지 않은 이유에서도 알 수 있듯 경제적 측면이나 거주지 등 여러 부분이 해결될 경우 생각을 바꿀 인원이 적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다. 단순히 결혼 여부가 출산에 기여하지 않는다. 결혼하더라도 출산 원치 않는 '링크족'이 있다. KBS에

서 방영한 저출산 40년, 다가오는 재앙 다큐멘터리 출연한 김혜수 씨는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로 임신과 출산으로 회사 생활에 지장이 된다는 점과, "사회의 과도한 경쟁에 아이를 뛰어넘게 하고 싶지 않다" 말한다.

국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정부는 8월 29일, 내년 예산안을 공개했다. 올해보다 25.3% 더 늘어났다. 정책으로는 출산 가구 최저 수준 금리 대출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낮췄으며 맞벌이 부부의 패널티를 줄였고, 공공보양 특별공급에 우선 배정했다. 결혼의 여부가 아닌 아이 출산 여부로 지원하는 정책을 내놨다. 이외는 부부 함께 육아 휴직 시, 유급 육아 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적용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늘렸다. 그럼에도 기업 문화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제도가 실질적인 작용을 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시민 인터뷰]

- 임유민 (가명, 대학생, 21세)

Q. 미래에 아이를 낳고 싶은가요?

A.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할머니 세대는 개인이 온 식구를 부양하는 세대였고, 우리의 부모 세대는 부모와 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책임지는 행위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된 세대로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을 한다면 아이를 낳겠지만, 누군가를 책임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알고 있어 선택이



▲ 출처: 연합뉴스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Q. 10~20대가 출산에 대한 생각이 변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A. 평범하게 사는 게 너무 어려워져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비교와 경쟁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해졌는데 게다가 SNS나 유튜브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화려하고 잘 사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좋은 차, 서울에 아파트, 비싼 옷이나 가방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나도 저 정도는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나부터 나를 평범하게 책임지지 못하는데 한 아이를 출산해서 책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저를 포함한 젊은 사람들의 출산에 대한 생각은 평범하게 살고 난 다음의 고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송기현 수습기자
(hsrlgus125@gmail.com)

하마스 기습공격, 한순간 끔찍한 학살 현장으로 변한 축제... 극단으로 치달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 출처: 뉴시스

지난 7일,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에서 열린 슈퍼노바 페스티벌 현장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알려진 실종자만 500명으로, 응급구조단체인 자카는 행사장 주변에서 260구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사태로 미국인 외에도 네팔,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캐나다, 태국, 프랑스인 등 상당수의 외국인이 숨지거나 인질로 붙잡혔다.

하마스의 기습공격 이후 이스라엘은 특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반격에 나섰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23일(현지 시각), 7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팔레스타인인이 총 508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24일 "지난 24시간 동안 704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사망했다"며 지난 7일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누적 사망자는 5791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전쟁이 격화되면 지금까지 양측 부상자가 2만 명을 넘는 등 인명 피해가 늘고 있다.

한편 현지 시각 17일, 로이터 통신과 BBC는 이스라엘군 정보 책임자가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예상하지 못한 책임을 공개 인정한다고 보도했다. 500여 발의 로켓 발사로 이스라엘의 대공 방어 체계인 '아이언 돔'이 뚫리면서 모사드의 휴민트(인적정보) 악화가 패착 요인으로 분석

된다.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극심한 위기에 달했다는 경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등에서 하마스가 억류한 인질 석방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상전을 연기하라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교수 인터뷰]

- 채성준 교수 (군사학과)

Q. 우리나라도 하마스를 테러조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현재 테러조직의 정의에 대해 국제사회의 일치된 합의는 없고, 각국에서 자국의 안보와 위협에 따라 테러조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러조직으로 지정되면 지속적인 감시와 자금 흐름 차단 등 직접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정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고 규정된 것을 토대로 국제사회와 공조해 테러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마스는 UN이 지정한 테러단체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경위원회는 하마스가 국제테러단체에 포함되어 있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중동 기반 국제테러단체의 직접적인 위협 대상으로 부각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슬람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할 때 하마스를 특정해 테러단체로 지정하기보다는 테러방지법 상 규정에 따라 국제사회와 공조해 테러대응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Q. 휴민트(인적정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정보활동에서 휴민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모사드와 같은 정보 실패를 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테크(기술정보)를 신뢰했지만 정작 하마스는 통신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만나 소통했으며, 기습공격 당시 가자지구 본거지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와 센서 등을 파괴해 이스라엘 정보 능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사실 모사드는 명성을 날리며, 휴민트가 가장 큰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스라엘 정보기관 요원들 간에 위험성이 큰 휴민트 활동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생겨 휴민트 망 부식이 어려움에 따라 몇 년 사이 첩보활동은 디지털로 대폭 전환하면서 휴민트망이 약화됐습니다. 그 결과 기습공격에 특수무력으로 당하는 '정보참사'를 겪고 말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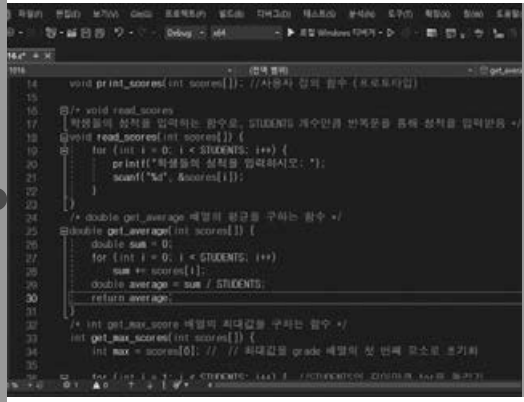
Q.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입니까?

A. 팔레스타인 무장 강경파와 아랍 적성 국가들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안보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사회라 우리나라도 테크(인)에 의존하고 있지만 우리 군과 주한 미군이 운용하는 대북 정찰 자산은 여러 제약으로 인해 24시간 전천후 감시가 어렵습니다. 북한은 거짓 정보나 핵심 무기·장비를 은폐·엄폐하는 등 정보 수집에 차질을 빚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보완하는 궁극적인 수단은 휴민트뿐이지만 통제와 감시가 철저한 북한의 특성상 한계가 있습니다. 북한에 중국 국적 조선족을 잠입시키거나 북한 내부 협력자를 잘 활용해야 모사드와 같은 정보 실패를 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송민경 기자
(tilldawn012@skuniv.ac.kr)

학 우 인 터 부 > > > > > >

4차 산업혁명의 중심, '소프트웨어학' - 소프트웨어학과 이예은 (3학년, 19학번)



Q. 소프트웨어는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배우나요?
A. 컴퓨터 기계장치를 다루는 하드웨어와는 달리,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을 말합니다. 즉 인간의

뇌가 소프트웨어, 필과 다리는 하드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크게 응용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나뉘는데 window, linux 등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응용 소프트웨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엑셀, 한글 등) 따라서 4년의 학부 동안 프로그래밍 언어, 운영체제, 자료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을 학습하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훈련을 진행합니다. 1학년은 프로그래밍 언어(C언어, JAVA 등)와 친해지기 위한 연습을, 2학년부서는 1학년 때 배운 내용을 응용하여 보다 심화된 내용을 배웁니다.

Q. 소프트웨어 학과 학부생의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A. 소프트웨어 학과의 수업 대부분은 복약관 6층 실습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실습실

이면, PC 환경이 구축된 강의실을 말합니다. 학부생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래밍 관련 소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외에도 하드웨어 및 운영체제 관련 이론 수업을 듣기도 합니다.

Q. 소프트웨어 학과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A. 소프트웨어 및 게임 개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데이터 분석가 등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합니다. 프로그램 개발은 크게 프론트엔드, 백엔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내 사용자가 볼 수 있는 환경을 개발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사용자가 볼 수 없는 환경(기능 구현)을 개발하는 백엔드 개발자가 그것입니다. 모든 학문이 그렇듯 소프트웨어 또한 매우 방대하고 폭넓은 학문이기에 때문에 본인에게 잘 맞고 자신있

는 기술(프로그래밍 언어 등)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관련 분야로 진출할 수 있으니까요.

Q. 서경대 소프트웨어 학과의 자랑거리?
A. 우선 졸업 후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는 점이 자랑거리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전문성이 높은 학문이기 때문에, 전문직에서 종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요즘, 소프트웨어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망 있는 학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방학 기간에는 코딩테스트 특강, IT 특강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7월부터 소프트웨어 전문인재 양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졸업전 전문성을 키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학과에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해줍니다.

“다른 학과는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우리 학과를 소개합니다

학교에 갈 때 버스를 타고, 언덕을 오르고, 학식을 먹으며 수많은 학우들과 마주친다. 간혹 '저 사람들은 어떤 과일까?' 하는 생각이 스치고, 다른 과는 무엇을 배우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하지만 각자의 생활이 바빠 그저 생각에만 머물 뿐이다.

우리 학교에는 인문과학대, 사회과학대, 이공대, 예술대 총 네 개의 단과대가 존재한다. 단과대 내에 각자의 특색을 갖춘 학과들이 많지만, 우리 과가 아닌 다른 학과를 알아볼 기회는 부족하다. 필자 또한 타과 친구들에게 '너희 과는 뭘 배워?', '향후 진로는 어떻게 돼?' 등의 질문을 수없이 들었지만, 자세히 설명하기는 곤란하여 간략한 대답들로 때우곤 했다. 이 같은 질문을 들었을 학우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에 타과생들이 우리 학과에 갖고 있는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Q&A로 자신의 학과를 소개하는 장이 생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기획면에서는 서경대의 다양한 학과 중 인문과학대의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노어전공, 사회과학대의 이동학과, 이공대의 소프트웨어학과, 예술대의 영화영상학과 총 네 개의 학과를 소개해보려 한다. 해당 학과들에 재학 중인 학우를 대상으로 학과 소개, 배우는 과목, 우리 학과만의 특별한 점, 향후 진로 등 타 학과들이 궁금해할 내용이 담긴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다. 평소 갖고 있었던 궁금증이 풀렸는지, 또 특정 학과에 대해 내가 가졌던 생각이 바뀌었는지 기사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자.

레디! 액션! 영화과 생활 속으로! - 영화영상학과 손기현 (2학년, 22학번)



Q. 영화영상학과에선 어떤 내용을 배우나요?
A. 영화영상학과는 영화와 영상 제작을 위한 모든 것을 배웁니다. 영화는 크게 3가지로 작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나리오 작업과 연출법 등 촬영을 하기전 모든 것을 말하는 Pre-production(사전 작업), 카메라와 조명, 배우들과 합을 맞춰 찍는 촬영 과정을 말하는

production(촬영), 컷 편집과 색 보정, 사운드 믹싱 등 촬영 이후의 작업을 통괄하는 Post-production(후반 작업)이 그것입니다. 시나리오, 영화사, 실험영화 등 다양한 공부를 통해 영화의 깊이를 늘립니다. 또한 학부생들이 한 학기에 관련된 영화를 제작해야 하는 '워크숍'이 있기 때문에 위에 말한 과정을 한 학기 동안 반복하며 영화를 배웁니다.

Q. 영화영상학과 학부생의 일주일은 어떻게 흘러가나요?
A. '월 To 목'으로 영화과의 생활은 한 주씩 반복됩니다. 촬영하기 위해 목요일에 장비를 반출하며 월요일까지 촬영을 마치고 장비를 반납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촬영장이 좋다면 한 학기동안 주말을 촬영장에서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연출자의 촬영이 끝

나면 메인관 7층에 있는 편집실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매 학기 말에 열리는 학교 영화제 'Premiere of Passion'가 다가오면 메인관 7층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한 달 전, 마스터 기간 동안은 많은 학부생들이 작품의 후반작업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학교에 머물렀습니다. 매 학기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바쁘고 즐겁게 지냅니다.

Q. 영화영상학과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A. 영화 감독, 촬영 감독, 조영 감독 등 영화나 영상 매체에서 감독을 맡기 위해 각 팀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광고나 영상 회사의 프로덕션을 창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CJ ENM'이나 '박태준만화회사' 등 여러 매체의 시나리오 작가나 스토리 프로듀서 등

로 직업을 가지시는 분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야기와 카메라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일할 수 있습니다.

Q. 서경대 영화영상학과만의 매력
A. 첫번째는 누구나 영화를 찍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적지 않은 학교에서 자신의 연출작을 많이 못 찍고 졸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학기에 한 작품을 찍어야 한다는 조건 속에서 여러 작품을 찍으면서 겪는 실수와 배움을 통해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으며 시나리오를 피드백 해주시는 교수님들과 맥 스튜디오로 구성된 편집실, 좋은 촬영 장비들로 영화를 찍을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보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이동학과', 교구 제작과 모의 수업까지! - 이동학과 유지우 (3학년, 20학번)



Q. 이동학과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A. 이동학과는 아동의 발달 과정과 교육 이론을 학습하여 영유아 보육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 아이들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사회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발달에서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아이들의 바람직한 발달을 돕기 위한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

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년간 다양한 교과목들을 통해 어린이집의 전체적인 일과 운영 체계를 학습하고, 현장 실습을 통해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적 자질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Q. 이동학과와 유아교육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이동학과를 졸업하면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소속인 어린이집 취업이 가능합니다. 유아교육과의 경우 졸업 후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육부 소속인 유치원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Q. 이동학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을 배우나요?
A. 어린이집에 취업하기 전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과목들을 배웁니다. 1학년 때는 아동학개론과 영아발달, 보육학개론과 같은 전공 기초 과목들을 배우고, 2학년 때부터 아동미술,

건강교육, 음악지도, 수학지도, 언어지도, 교재교구지도 등 분야별 전문성을 키우는 과목들을 배웁니다. 아동미술이나 교재교구 과목의 경우 교내 스콘 어린이집에서 직접 교구를 제작하기도 하고, 음악지도나 언어지도의 경우 모의 수업을 진행하거나 활동 계획안을 짜보기도 하는 등 실무에서 쓰이는 내용들을 미리 경험합니다.

3학년은 생활지도, 교수 방법, 안전관리 등 실습 전 갖추어야 할 심화 지식을 학습하고, 3학년이 끝난 겨울방학에 6주간 보육실습 과정을 거칩니다. 실습 후 보육실습, 보육교사론과 같이 보육교사 역량 증진에 필요한 과목들을 수강한 후 졸업 시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Q. 이동학과 졸업생들의 향후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A. 대부분 졸업 후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푸르니, 한솔 재단 직장어린이집이나 국공

립 어린이집으로 취업합니다. 이후 일정 기간 현장 경력을 쌓은 후 원장이 되거나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보육 공기업에 취업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유아 교구 제작 회사, 아동 출판사 등 관련 기업체에 다양한 경로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Q. 서경대학교 이동학과만의 특별한 장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보육 현장 경력과 원장 직력을 갖춘 우수한 교수진들과 선배님들이 계셔서 서경대학교 아동학과 졸업생이라는 이름 자체가 경쟁력이 있으며 외부에서도 많이 알아주고, 향후 실습이나 취업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동학과에서 일정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6주간 보육실습을 다녀오면 국가자격증인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이 주어져, 취업률이 우수합니다. 취업난인 요즘,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격증이 주어지는 것은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인재 -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노어전공 - 노어학과 송민경 (3학년, 21학번)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는 실용 외국어 교육 및 비즈니스 실무 교육을 통해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또한 글로벌 비즈니스 관련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능숙한 외국어 구사능력 및 비즈니스 실무능력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부다.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는 영어전공, 일어전공, 중어전공, 노어전공, 불어전공으로 구성돼 있다. 필자는 이 중 노어전공에 대해 알아보았다. 노어전공은 러시아,

러시아인 그리고 러시아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폭넓은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공이다.

Q. 노어전공은 전반적으로 무엇을 배우나요?
A. 노어전공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한 마디로 다시 말해 '러시아어를 배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통해 어휘, 회화, 문법, 강독 등 러시아어 구사 능력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경제, 문화, 사회, 정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킵니다.

Q. 노어전공의 강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우선 유엔에서 정한 공용어 중 하나인 러시아어는 전 세계에서 많이 쓰이기에 한 번 배워두면 다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처음 만나는 키릴 문자가 어렵게 느껴지지만 익숙해지면 필기체도 막힘

없이 쓸 수 있습니다. 키릴 문자는 다른 언어를 배울 때도 매우 유용합니다. 노어전공은 학부 내 타 전공에 비해 러시아어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활짝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순히 강의로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온 교환학생들과 직접 만나며 실생활 러시아어를 체득합니다. 정해진 강의 시간 외에 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흥미로운 러시아어 학습이 가능합니다.

Q. 노어전공의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분야는 어떻게 되나요?
A.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분야는 기업, 공공기관, 교육, 언론, 관광, 금융 분야 등 다양합니다. 전공을 살려 현지에서 일하고 계시는 선배님들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학생으로서, 언어 전공이기에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 제약이 없다고 느낍니다. 교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선배님

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출 분야와 범위가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Q. 학과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이나 활동이 있나요?
A. 1학년 때 모든 게 새롭고 흥미진진했습니다. 21학번이라 코로나로 인해 입학부터 비대면 활동이 당연했는데요. 배운 표현을 활용해 상황극 대본을 작성하고, 직접 만나서 영상을 제작했던 경험이 즐거웠습니다. 또한 '2021 서울국제제도서전'에 참여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러시아인 친구와 선배들과 함께 러시아 문학에 대한 영상을 제작했는데 처음으로 러시아인을 만난 것과 더불어 평소 관심 있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러시아어를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한 계기가 됐습니다. 매 학기 새로 만나는 러시아 친구들도 반갑고 기대가 됩니다.

노어 학과, 소프트웨어 학과, 영화영상학과, 이동학과 총 네 가지 학과의 생활을 알아봤다. 각자 학과 생활이 바빠서 다른 학과가 뭘 하는지 관심을 가지기 쉽지 않다. 특히 비대면 교양이 많아진 이후부터 더욱

타 학과와 만날 수 있는 일이 줄었다. 작은 중 화면 넘어 보이는 타 학과는 항상 물음표였다. 하지만 청아제전과 가을축제를 통해 간간히 다른 학과들의 삶을 엿볼 수 있게 되면서 서로를 알 기회가 열렸다.

삶에 가장 큰 재미는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뀔 때라고 한다. 000학과 이름 이외에는 알 수 없었던 깊은 이야기를 보며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꿀 수 있었다.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세상

을 열어나가는 것도 삶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번 기회를 통해 작은 중 화면 속 타인이 아닌 조금 더 용기를 내 새로운 느낌표를 만들어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세종대왕 기념관에서 우리말의 시작을 만나다

한글날을 맞이해 한글의 가치와 의미를 새겨보고 싶다면 이곳에 방문해보는 것은 어떨까? 바로 '세종대왕기념관'이다. 세종대왕기념관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위치한 기념관으로, 6호선 고려대역에서 도보로 15분이면 갈 수 있다.

세종대왕기념관은 조선 세종의 성덕과 위업을 추모하여 이를 길이 보존하기 위해 지어진 곳으로 세종대왕과 관련된 유적과 유물 및 관련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입장료는 성인 3000원, 유아·청소년 1500원이다. 기념관은 일대기실, 한글실, 과학실, 특별 전시실, 야외 전시장으로 총 다섯 가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실은 대체적으로 크진 않았지만 전시물들이 많아 알차다고 느꼈다. 또한 발전 과정 순으로 전시실을 둘러볼 수 있게 되어 세종대왕의 한글창제와 그 이후의 발전들을 알아보기 편했다.

일대기실에는 세종대왕의 생애 및 업적이 담긴 작품들과 그 시대에 사용된 기아금, 태평소, 당피리 등의 악기와 악보, 악사, 복식 등이 전시되어 있다. 악기의 종류별로 악기가 활용되는 작품이 설명과 함께 전시되어 작품의 이해가 쉬웠다.



한글실에는 세종대왕 시절에 계획되었거나 간행된 서적이 전시되어 있다. 훈민정음,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등 그 당시의 문화 수준을 알 수 있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훈민정음의 창제·반포 과정들도 적혀 있었다. 또한 글꼴 발굴과 복원에 관한 자료들과 여러 문고도 있어 한글문화의 발전 과정을 볼 수 있었다.

과학실에는 세종대왕 때 발명된 다양한 발명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다양한 시계, 천문 관측 기구, 활자 조판 유물, 한의학 침구 등 그 당시의 과학 기술력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물들이 있다. 또한 한글 문화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특별 전시를 진행 중이라 한글 상품들을 볼 수 있어 좋았지만 두 가지 종류의 전시를 한 공간에서 진행하다 보니 어수선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특별전시실에는 세종대왕 때 제작되거나 정비된 악기들과 각국의 다양한 종류의 타자가가 전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한글의 기계화 및 현대화를 위한 노력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야외전시장에는 앙부일구, 측우기, 기념탑 등 세종대왕을 기리는 탑과 동상이 전시되어 있다. 웅장한 전시물들을 보면서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업을 느낄 수 있었다. 야외 전시장은 방문 당시 공사가 진행 중이라 조금 어수선한 감이 없지 않았다.

전시물 관람하면서 세종대왕의 정신을 되새겨볼 수 있었다. 또한 한글의 위대함을 다시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세종대왕의 위대함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 및 시대상까지 함께 알아보고 싶다면 세종대왕기념관에 방문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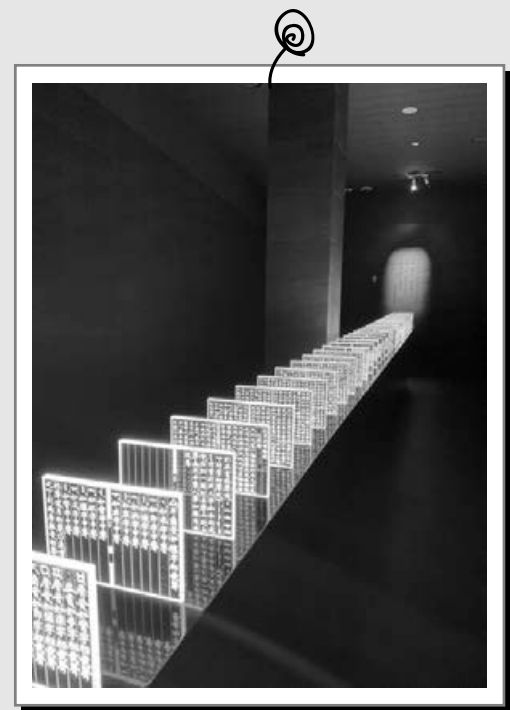
세종대왕 기념관에서는 매년 한글 글꼴 디자인 공모전, 외국인 한글 글씨쓰기 대회 등의 행사 또한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글문화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특별 전시를 진행한다고 하니 참고 바란다.

운영시간 : 여름철 9:00 ~ 18:00 / 겨울철 9:00 ~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휴무)
주소 : 고려대역 도보 15분
문의 : 02-969-8851

모두가 문자를 쉽게 읽고 쓰는 세상을 꿈꾸다, '훈민정음, 천년의 문자 계획'

국립한글박물관은 우리 민족 최고의 문화유산인 한글의 문자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2014년 10월 9일 문을 열었다. 국립한글박물관은 국내외 흩어져 있는 한글 자료를 조사·수집·연구하고 전시를 통해 한글의 문화적 다양성과 미래 가치를 보여준다. 또한 세대와 국적을 넘어 소통과 공감을 지향하는 한글 교육으로 한글문화를 꽃피우는 곳이다. 곧 있으면 다가올 한글날을 맞이하여 한글의 역사를 알아보기 위해 신문사 취재부는 국립한글박물관 '상설전시실'을 방문했다.

2층 상설전시실은 『훈민정음』의 머리말의 문장에 따라 7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장 전체가 한 권의 『훈민정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전시장을 따라 걷다 보니 한글이 걸어온 발자취를 느낄 수 있었다. 1부의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는 한글이 없던 시절의 문자를 소개하고 있다. 점과 선을 이용하거나 한자를 변형한 글자로 우리말 조사와 어미를 표시한 불교 경전을 통해 우리말 표현 방법을 소개함과 동시에 그 한계를 보여준다. 2부는 '내 이를 딱하게 여겨'에서 세종대왕 어보로 세종의 한글 창제 정신을 설명하고 있다. 3부의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는 한글을 만든 원리와 그 실험을 소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유물은 『훈민정음해례본』, 『용비어천가』, 지난해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인사동 출토 한글 활자들, 『월인천강지곡』 등으로 한글 창제 배경과 원리, 사용 예시를 관람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4부의 '쉽게 익혀'는 한글의 보급을 주제로 하였다. 공적 목적으로 제작된 유교, 불교, 실용서, 제도·법률서의 한글본을 전시하여 관 주도 한글 보급을 소개하고 있다. 한글 편지, 고문서, 필사본을 전시하여 민간까지 확산하는 한글문화의 모습을 전달하고 있다. 6부의 '날로 씌어'는 일제강점기 한글 연구와 교육, 문학을 주제로 하여 탄압받는 한글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 계승 의지를 드러낸 연구자들의 모습을 조명했다. 7부의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는 한글을 편안하게 만든 정책과 다양한 서체 등 오늘날 누구나 편하게 사용하는 한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하여 7가지 공간으로 구성된 국립한글박물관 상설전시회 투어를 모두 마치니 조선시대 세종이 창제한 훈민정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글의 역사를 자세히 알 수 있었다. 국립한글박물관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유리 속 유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다양하게 배치된 전시 요소를 직접 만져보고 상호작용함으로써 한글의 구조와 역사, 교육과 문화 이해할 수 있다.

곧 있으면 다가올 한글날, 국립한글박물관 상설전시실에서 우리 한글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전시기간 : 2022. 01. 21(금) ~ 2030. 12. 31(화)
주소 :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9 국립한글박물관 2F 상설전시실
입장료 : 무료
문의 : 02-2124-6200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한글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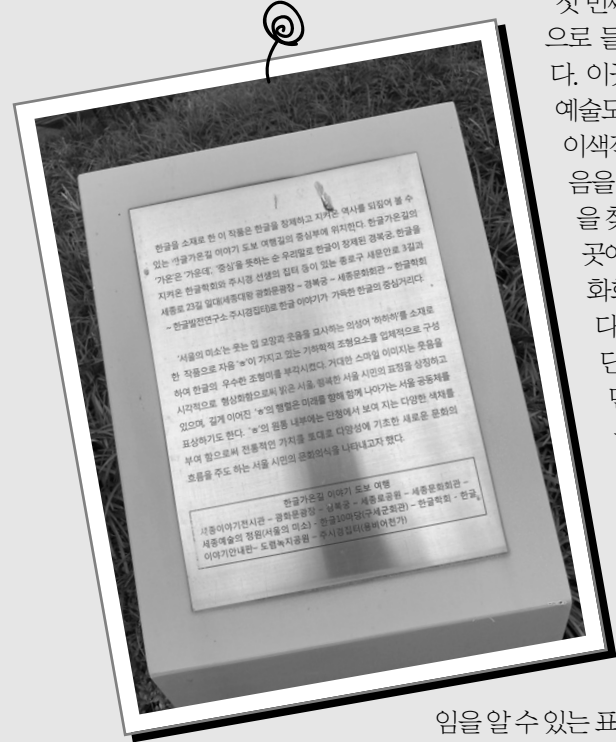
10월 9일은 한글날이다. 한글날은 훈민정음, 즉 오늘날의 한글을 창제하여 세상에 반포한 것을 기념하여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국경일이다.

지금으로부터 577년 전, 백성을 아끼던 세종대왕은 글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항의할 수 없고 자신의 뜻조차 직접 쓸 수 없는 자들을 위한 글자를 만들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바로 '훈민정음'이다.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주도하여 만든 문자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뿐만 아니라 창제 정신이 '자주, 애민, 실용'에 있다는 점에서도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우리의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한글이지만 '한글날' 단 하루만큼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언어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아름다움과 역사를 되새기는 시간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 제577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한글의 과거와 현재를 만나볼 수 있는 장소들을 신문사 취재부가 찾아가 보았다. 한글과 관련된 전시, 체험 활동, 한글 신문부터 세종대왕 기념관까지, 그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보자.

서울의 중심에서 한글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한글가온길'

서울의 중심, 광화문에는 한글의 발자취를 따라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있다. 바로 '한글가온길'이 그것이다. '가온'은 가운데 즉 '중심'을 뜻하는 순 우리말이다. 가온길은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에서 시작해 종로구 새문안길에 위치한 주시경 선생의 집터에서 종료된다.

자세한 루트는 다음과 같다. 세종대왕 동상 ▶ 세종이야기 ▶ 세종문화회관 ▶ 세종 예술의 정원(서울의 미소) ▶ 한글학회 ▶ 한글가온길 새길 돌 ▶ 한글이야기 10마당 벽화(구세군회관) ▶ 주시경마당 ▶ 주시경 집터(용비어천가) ▶ 한글글자마당 등 총 10개의 코스로 이뤄져 있다.



첫 번째 시작 지점인 세종대왕 동상에서 뒤편으로 들어가면 '세종이야기'라는 전시 공간이 나온다. 이곳에선 훈민정음 창제뿐만 아니라 세종 시대의 과학과 예술도 살펴볼 수 있다. 이외에도 미디어를 이용한 세종대왕과의 대화 등 이색적인 체험활동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방문을 추천한다. 이후 길을 옮겨 세종문화회관으로 향했다.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숨겨진 동상을 찾는 재미가 쏠쏠하다. 자칫 동상을 못 찾고 지나칠 우려가 높으니 곳곳에 위치한 푸른빛의 동상을 유심히 살펴보길 바란다. 그렇게 세종문화회관을 지나다 보면 어느새 한글학회 앞에 도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글학회는 한글의 연구, 통일, 발전으로 목적으로 하는 민간 학술 단체라는 점에서 역사가 깊다. 한글학회를 기점으로 쪽 직진하다 보면, 주시경 선생의 집터 및 마당이 나온다. 아쉽게도 취재부가 방문했을 때 'GTx-A' 공사로 인해 마당 앞쪽 주시경, 힐버트 기념 조형물만 관람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중간중간 한글 나무, 한글 분수 등 다양한 조형물들을 살펴보았다.

취재부가 한글가온길을 걸으며 느낀 결과, 서울 한복판에 이러한 길이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이색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외에도 거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느꼈다. 서울사에서 조성한 한글 테마라는 명칭에 비해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길 중간중간 가온길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없었고, 가온길 공식 홈페이지 또한 설명이 부족했다. 이외에도 대다수 조형물이 녹슨것이나, 우거진 나무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따라서 앞서 가온길을 방문한 방문객의 블로그 글을 따라 걸을 수밖에 없었다. 서울 중심부에서 한글의 역사가 숨겨져 있는 것에 비해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다수가 모르고 지나친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취재를 마친 뒤, 매체나 미디어를 이용한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한글가온길을 찾았으면 하고 바래게 됐다.

앞서 둘러본 곳들을 통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우리 생활 속 한글의 발자취를 느껴볼 수 있었다. 취재부가 둘러본 곳들은 모두 저마다의 한글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품고 있었다. '세종대왕 기념관', '국립한글박물관', '한글가온길' 등 곳곳을 방문할 때마다 그 장소에서만 만날 수 있는 내용이 취재부를

우리말 언론, 한글 신문의 뿌리를 찾아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은 1883년 반문국이 발행한 한성순보다. 그러나 한성순보는 한문으로 작성되어 발행되었기에 최초의 한글 신문은 아니다. 그렇다면 가장 처음으로 한글로만 작성된 신문은 무엇일까? 신문사 취재부는 한글 신문의 뿌리를 찾기 위해 국립한글박물관을 찾았다. 박물관 2층 상설전시실에서 1897년 발행된 '독립신문 제2권 제115호'와 '1907년에 새롭게 만든 대한매일신보 순 한글판의 제1권 제1호', '한겨레 신문'을 만나볼 수 있다.

한글로만 작성된 최초의 신문은 바로 1896년 4월 7일 서재필이 창간한 '독립신문'이다. 독립신문은 최초의 민간 신문이자 순 한글 신문으로 가로쓰기와 띄어쓰기를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4면 가운데 3면은 한글전용 독립신문으로, 마지막 1면은 영문판 'The Independent'로 편집하다 1897년 1월 5일부터 국민과 영문판을 분리해 두 가지 신문을 발행했다. 독립신문은 19세기 말 한국 사회 발전과 민중 계몽을 위해 지대한 역할을 한 한 시대의 기념비적 신문이다. 이외에도 민중을 위한 알기 쉬운 신문을 만들었다는 점과 한글로 된 광고를 최초로 실은 점에서 획기적이라는 평을 받았다. 또, 신문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켜 그 후 여러 민간 신문 창간 계기를 제공해 1898년에는 '매일신문' '제국신문' 등이 창간되었고, 이들 신문의 체재와 기사 작법에 영향을 주었다.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에 간행된 일간 신문으로 처음에는 국문 2면과 영문 4면으로 발행하다 1905년부터 국문과 영문을 구분해 각각 발행했다. 이때 국문판은 한글과 한자를 섞어서 사용했으나, 한자를 모르는 독자들을 고려해 1907년부터는 순 한글판을 따로 발행하기 시작했다. 신문 첫 면의 사설에서는 '한국은 국문이 발달해야 사람의 지혜가 열리고 나라 힘이 충실할 것이다'라며, 순 한글판 신문을 통해 국민의 정신을 깨어 일으키겠다는 대한매일신보사의 간행 방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한겨레 신문'은 우리나라 중앙 종합 일간지 중 가장 먼저 가로쓰기를 적용했다. 첫 연부터 마지막 연까지 모두가 가로쓰기 편집을 적용했는데 이는 더욱 읽기 쉬운 신문을 만들어 읽는 독자 세대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조치였다. 가로쓰기 적용 초기에는 '읽기 불편하다, 무계가 없어 보인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후, 한겨레 100호 기념 여론 조사에서(한겨레 독자 500명, 기타 독자 500명) 가로쓰기에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이 70%를 넘어서며 가로쓰기의 편익성이 증명됐다.

전시실을 다 둘러보고 취재부는 국립한글박물관 1층에서 한글도서관을 만나볼 수 있었다. 한글박물관은 국내 유일 '한글' 전문도서관으로서 한글과 한글문화 관련 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서 상설전시실에 전시되었던 자료들을 실제로 만나볼 수 있다. 단순히 보는 것만 아닌 서책들을 직접 넘겨볼 수 있었는데 종이의 질감까지 보통 책들과는 달라서 많이 신경 썼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글 신문의 뿌리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 보고 싶은 분들께는 국립한글박물관에 들려볼 것을 추천한다.



주간칼럼

왜 “현장과 달라요~~” 라고 생각하는가?

주간 방미영 교수

“현장과 달라요~.” 하계방학 동안 인턴십으로 활동하고 온 학생의 말이다. 본인이 기획한 프로젝트가 현장에서 실행되는 것에 대해 자긍심으로 사기충만하던 학생의 얼굴은 어느새 실망스럽고 의아해하는 표정으로 변해있었다. 그리고 왜 다르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질문해왔다. 학생의 풀죽은 모습을 보고 오히려 필자는 호탕해졌다. 질문을 해온 학생이 “왜 다를까요?” 하는 질문 자체는 무한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본적 소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과 달라요” 라는 말은 백번 맞는 말이다. 현장을 보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생성된 기획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없는 구조로 쓰레기통에 바로 버려진다. 대부분 학생

들은 막학기로 진로를 정할 때쯤 발등에 불 떨어지는 촉박함으로 찾아온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산재해온다. 그러나 포트폴리오는 단기간에 생성되지 않는다. 꾸준히 현장과 연계를 통해 전공 관련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위 학생은 아이디어가 실행되는 실질 프로젝트를 여러 번 참여하여 꽤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과 달라요~~” 라는 짧은 탄식으로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기획하여 오류를 범했다.

실전을 통해 현장과의 연계로 전공에서 배운 것을 위한 현장성을 간과한다면 위 학생처럼 수많은 밤을 새워가면 기획하고 제안한 프로젝트는 바로 휴지 조각이 되기 일

수다. 그러나 학생의 신분으로 많은 현장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다. 다행히 어려서부터 많은 곳을 보여주고, 공감하게 하는 유년시절을 보냈다면 그나마 현장에 대한 인식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나 해답을 여러 번 참여하여 꽤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과 달라요~~” 라는 짧은 탄식으로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기획하여 오류를 범했다.

중요하다. 현장에서 얻은 정보는 이론적인 지식만으로는 얻을 수 없다. 물론 현장 경험은 그것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이론적 인지도도 중요하다. 현장에서 얻은 정보는 대개 현실적이고 실질적이다. 이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을 고려할 수 있게 한다.

필자는 이 학생의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 서재에 꽂혀 있는 데일 카네기 저서를 다시 꺼내 들었다. 1988년 미국 미주리 주 매리빌에서 태어난 데일 카네기는 센트럴미주리 사범대학 졸업 후 1912년부터 YMCA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 유명세를 타면서 세상에 이름이 알려졌다. 특히 카네기는 저서 [자기관리론], [성경대화론],

[인간관계론] 등을 출간하면서 불후의 3부작으로 전세계인에 그의 이름을 각인시켰다.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에는 어떠한 문제를 걱정하기 전 다음의 질문을 생각해 보라고 하고 있다. 첫째, 문제는 무엇인가? 둘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셋째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무엇인가? 넷째, 최선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라고 격정을 분석하는 기본 기술에 대해 피력하고 있다. 이론에서 배운 전공이 현장에서 다를 때 “현장하고 달라요~~” 라는 막막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키워드가 이 책에는 담겨있다. 이번 가을학기를 마지막으로 사회에 진출할 서경인들에게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을 읽어보기를 적극 추천한다.

| 기자의 눈 |

‘이름+반말’ 평어, 존댓말을 하지 않아도 예의 바르게 말할 수 있다

“진혜는 사랑을 많이 했나 봐?” 교수님한테 반말한다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실제로 교수님과 반말하는 학생들이 있다.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청운관 강의실에서 김진혜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평어’ 수업을 진행한다. 교수와 학생들은 모두 평어를 사용한다. 평어가 뭐길래 교수님의 이름을 거리낌이 없이 부르는지,

철학자인 이성민 작가가 민음사 문학잡지 ‘릿터’ 31호에 실린 글 ‘성장의 길은 옆으로’에서 디학에서 출항해 3년째 항해 중인 평어를 소개했다. 그는 평어를 ‘이름 호칭 +반말’로 구성된 새로운 한국말이라고 했다. 릿터 팀원들은 디학 사람들의 평어 경험을 엮은 책 ‘예의 있는 반말’을 읽고 평어 실험을 시작했다. 나는 실험의 성공 여부보다 회사에서 평어를 쓴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했다.

어디선가 속속들이 늘어놓은 평

어 실험기를 보고 여운이 잔잔하게 이어져 관련 기사와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평어가 실린 릿터 34호와 39호를 구해 잡지에 실린 글을 한 자도 빠짐없이 읽었더니 여가 지기 흠여져 있는 파편들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나름대로 평어의 의미를 조합해 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어는 나이와 지위를 막론하고 ‘이름+반말’의 형식을 사용한다. 반말은 아주 친밀할 때 쓰거나 손아랫사람에게 하듯 낮추어서 하는 말이라 평어와는 다르다. 그렇다고 평어는 존댓말도 아니다. 다시 말해 평어는 반말도 존댓말도 아니다. 평어는 예의 있는 반말 내지는 ‘격식을 갖춘 반말’이다.

존댓말과 반말 중에 무엇이 더 편한지를 따져보면 당연히 반말이 편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존댓말이 편한 사람도 있다. 바로 내가 그렇다. 성인이 되고는 반말보다 존댓

말이 편했다.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감이 느껴지면서도 서로 예의를 갖추며 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초면에 대뜸 반말을 특출 내뱉는 사람을 보면 ‘언제 봤다고 반말이지?’ 불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반말을 시작하고 나서야 편해진 관계도 있었다. 특히 동갑을 만날 때 더 그랬다. 활동한 지 약 2년 남짓 된 러닝크루에는 동갑인 친구들만 있다. 처음에는 당연히 존댓말로 인사를 나눈다. 이내 “동갑이니까 말 편하게 하자”며 반말하기 시작한다. 조금 전까지 존댓말하다 반말하러니 살짝 어색하지만, 막상 말하다 보면 술술 얘기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편해지면 말 놓을게요”라는 말이 외려 벽을 치는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번뜩었다.

평어를 알게 되고 나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존댓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단단히 무너졌다. 높낮이를 따지지 않고 사용하는 경

로 족하다. 우리 신문사는 회의에서 무조건 존댓말을 써야 한다. 익숙한 분위기 속에서 기자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사투 진지한 표정으로 임한다. 여태 느끼기로는 평소 가깝다기도 회의가 시작되면 돌연 멀어지는 기분이 이상했다. 서먹한 분위기에 괜히 서운해졌다. 그런데 평어라면, 보다 편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당장 신문사 회의에서의 평어를 상상해 본다.

지금 굳이 존댓말이 아니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만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평어를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점친다. 그러나 오늘은 가까워지고 싶은 이와 평어를 써보는 건 어떨까. 예의 바른 태도는 필수다.

이리 사용하기 어려움에도 평어의 범위는 차츰차츰 넓어졌다. 평어 사용기를 보며 내 입상에 들어와 보면 어쩔지 기대가 일렁였다. 왕왕 가까운 사이가 부담스럽지만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걸

송민경 기자

(tilldawn012@skuniv.ac.kr)

사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등록금을 내는가
수강 신청의 이면

이예은 기자

(kosoyi@naver.com)

| 수습의 눈 |

화제의 넷플릭스 k-드라마, 자극적 소재만이 필승법일까

올해 넷플릭스에서 큰 화제를 불러온 드라마 두 개를 꼽자면 ‘더 글로리’, ‘마스크걸’ 일 것이다. 두 작품의 공통점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자극적 소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 글로리는 학창시절 학교폭력으로 몸도, 마음도 부서진 ‘문동은’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준비한 복수에 관한 스토리가 담긴 드라마다. 극 중 가해자들이 어린 문동은에게 가혹한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적나라한 장면들이 존재한다. 구타나 폭행, 협박, 성폭력은 물론이고 고대기로 신체를 문지르는 등 보기 힘들

정도의 잔혹한 장면들이 셀 수 없이 나온다.

물론 ‘학교폭력’과 그 ‘가해자’들에 대한 복수를 다루는 소재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며, 실상은 그보다 더하리라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알고 있는 것과, 미디어를 통해 두 눈으로 접하는 것은 다르다. 필자 또한 다른 시청자들과 같이 자극적인 장면들에 몰입하며 해당 드라마를 끝까지 시청하였지만, ‘이 정도로 자극적인 장면들이 꼭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든 것도 사실이다.

최근 화제가 된 또 다른 드라마 ‘마스크걸’ 또한 외모 콤플렉스를

가진 주인공 ‘김모미’가 낯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밤에는 가면을 쓰고 인터넷방송 BJ로 활동하며 여러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자극적인 소재의 드라마이다. 마스크걸에는 총 세 번의 살해 장면이 나오며, 살해를 저지르는 장면들은 꽤 상세하게 묘사된다. 칼이나 송곳, 밧줄 등 각각의 살해 도구도 다르다. 살해를 당한 인물들이 극 중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동정의 여지는 없을 수도 있지만, 살해 묘사 장면들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기괴하고 잔인하다.’

이러한 자극적인 소재의 드라마들이 인기를 끄는 분명한 이유가 있

다. 유튜브/인스타그램 쇼츠나 틱톡 등 ‘숏폼’ 영상들이 등장하면서 자극적인 몇 장면들을 해당 플랫폼으로 먼저 접하고, 호기심을 느껴 시청하게 되는 것이다. 유행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조회수가 돈이 되는 요즘 세상에서 어쩌면 당연한 이치다.

더 글로리의 흥행으로 인해 사회에 학폭의 심각성이 더욱 강조되고, 유명인들의 학교폭력이 공론화되는 등 고무적인 영향력을 전파했다. 마스크걸 또한 외모지상주의 사회를 비판하고, 인과응보의 무서움을 알려주었다. 따라서 자극적 소재가 나쁜 것만은 아니며,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고통과 시사점을 전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를 통한 드라마 요약본이나 쇼츠/릴스와 같은 다양한 플랫폼으로 어린 연령층도 쉽게 넷플릭스를 접할 수 있기에, 유해하고 잔인한 장면들은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방 범죄, 사회적 혐오가 넘쳐나는 요즘, 미디어에 노출되는 장면 하나하나가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주기 때문이다.

유지우 수습기자

(milkyway_85@naver.com)

| 수습의 눈 |

케이팝의 새로운 미래, 버추얼 아이돌

요즘 케이팝에 새로운 열풍이 불고 있다. 바로 버추얼 아이돌이다. 한국 최초의 사이버 가수는 ‘하림’이 시작이었으나 수요가 없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20년 걸그룹 ‘에스파’가 데뷔하며 멤버들과 다른 차원에 아바타 멤버들이 있다는 광야 세계관의 ‘ae-aespa(아이에스파)’를 공개했다. 에스파의 광야 세계관은 대중들에게 AI 아이돌을 인식시키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후 다양한 버추얼 아이돌이 탄생하기 시작했다. 멤버 전원이 버추얼 휴먼인 걸그룹 ‘메이비’는 데뷔곡 ‘판도라’ 챌린지로 쏠쏠하게 유행해 사람들에게 AI 가수의 존재를 알렸다. 또한 휴먼

멤버와 버추얼 휴먼 멤버로 이루어진 보이그룹 ‘슈퍼카인드’를 비롯해 다양한 구성의 버추얼 휴먼 아이돌들이 데뷔하고 있다. 그러나 버추얼 휴먼은 딥페이크 기술의 하나로, AI 기반의 인간 이미지를 합성해 실제 사람과 아주 흡사한 형태를 띄어 대중들에게 ‘불쾌한 낯뜨기’를 느끼게 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 있다. 버추얼 휴먼의 음성을 생성하려면 가수가 AI에게 노래를 학습시켜 목같이 따라하게 만든다. 후가공 작업이기 때문에 대중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오랜 작업 기간이 소요된다.

버추얼 휴먼 기술로 만들어진 그룹과는 다른 버추얼 아이돌이 있다.

‘플레이브’와 ‘이세계아이돌’과 같은 그룹이다. 이들은 캐릭터 뒤 ‘본체’가 존재한다. 모션 캡처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사람의 움직임이 고유 캐릭터에 그대로 반영되어 화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이 가능하다. 사람의 모습을 흡사하게 구사하는 방식이 아닌 웹툰 캐릭터 방식을 선택해 처음 버추얼을 접하는 대중들에게 거부감을 줄인다.

특히 플레이브는 유튜브에 릴레이 댄스와 직캠이 올라올 정도로 일반 아이돌과 차이가 없을 정도다. 이들은 전 멤버가 싱어송라이터로 작곡, 작사가 가능하며 안무 창작까지 한다. 플레이브는 9월 기준 공식

카페 가입자 5만 명, 유튜브 구독자 45만 명을 돌파했으며 지난 8월 컴백한 미니 1집은 타이틀곡 ‘뮤비’조별수 430만 회, 총동 20만 장, 한터 주간 음원차트 1위, 멜론 탑 100차트를 정도로 두꺼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다. 팬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좋은 음악으로 다가가며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IPL을 진행할 정도로 버추얼 기술 수준이 높아졌다.

필자 또한 버추얼 아이돌이 음악 방송에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일반 아이돌도 넘쳐나는데 굳이 버추얼 아이돌을 만드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나 버추얼 아이돌의 본체 대부분이 이미 데뷔했지만, 그룹이

잘 풀리지 않거나 해체해 활동하지 않는 아이돌들이라고 한다. 버추얼 아이돌은 그들에게 꿈을 되찾을 수 있는 희망이었다. 플레이브 멤버 하민은 “대중들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 돌을 던질 수도 있겠지만 그들을 설득하는 게 저희의 숙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편견으로 버추얼 아이돌을 바라보기보다 그들이 만들어가는 케이팝의 새로운 미래를 지켜보는 게 어떨까.

김나연 수습기자

(nykim0130@skuniv.ac.kr)

만/파/식/적

3년 만에 한국을 떠났다

지난 7월 여름 방학을 맞아 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태국으로 여행지를 정한 데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가, 적당한 비행 시간이 한몫했다. 비행기 표를 끊고 여행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다. 약 두달 간 경비 마련부터 계획까지 모두 필자의 힘으로 준비했다. 그렇게 민만의 준비를 끝내고, 한국을 떠났다. 약 6시간의 비행 끝에 마주한 태국의 풍경은 역시나 아름다웠다. 그렇게 3박 5일간의 여정이 시작됐다.

태국의 수도 방콕은 트래픽(교통체증)이 심한 도시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발달해 있다. 마치 한국처럼 말이다. 지하철 이름 또한 특이하다. 지상철 ‘BTS’ 지하철 ‘MRT’ 이 그것이다.

처음 방콕에서 지상철을 접했을 때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을 말하는 건가?” 하며 신기했던 기억이 있다. 구글링을 통해 알아본 결과 방탄소년단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걸 알게 됐다.

차 안에서 소중한 여행 시간을 날릴 수 없어, 대부분 BTS를 타고 이동했다. 지상철이다 보니, 방콕의 시내 풍경을 안전하고 빠르게 구경할 수 있었다. 비록 환승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었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만족스러웠다. BTS와 MRT를 타고 다니며 태국 사람들의 일상, 문화를 엿볼 수 있다는 점 또한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5일간의 짧은 여행을 즐기면서, 한류의 열기를 새삼 실감하기도 했다. 공항, 마트, 편의점, 식당 등에서 손쉽게 한국의 제품을 찾을 수 있었고 상점 곳곳에서 K-POP이 흘러나왔다. 방콕의 한 식당에서 한국의 문화를 사랑한다며 수준급의 한국어를 구사하던 종업원을 만나기도 했다.

낯선 나라에서 한국어를 만나다니 반갑기도 하고 한국인이라 사실이 자랑스럽기도 했다.

여행 일정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을 꼽자면 숙소 인근 지상철 역에서 하차해 숙소까지 걸어온 일이다. 약 30분간의 긴 거리였으나, 방콕의 문화를 보다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 용기를 냈다. 걸으면서 태국 구석 구석의 골목길을 살펴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 호기심이 가는 곳은 보다 오랜 시간 머무르며 천천히 구경했다. 그렇게 방콕의 밤거리를 걸었던 순간은 오랫동안 잊지 못할 정말 소중한 추억이 됐다.

3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만큼, 태국 여행은 정말 만족스러웠고 답답했던 마음에 환기를 선사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언어 등 모든 게 낯선 공간 속에서 직접 보고 느끼며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필자의 마음에 큰 자양분이 됐다. 곳곳에 위치하던 노점상, 빛나던 야경, 방콕 특유의 레몬그라스 냄새까지. 벌써 그립다. 그리운 마음에 또 다른 여행지는 어디일지, 마음이 들뜨는 요즘이다.

이예은 기자

(kosoyi@naver.com)

이달의 책

기다림 끝에 재회하고 싶은 - 내게 무해한 사람 최은영



달다. 의도와 달리 상처를 줬던 순간을 '나'는 잊지 않는다.

중종 소설 속 인물들은 '그때로 돌아간다면...' 하고 회상한다. 가령, 「그 여름」에서 이경은 은지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옛 연인인 수이와 헤어지지 않았을까 하고, 「고백」에서 미주는 진희가 커밍아웃하던 때로 간다면 좀 더 따뜻하게 말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면서, 어설플 지난날을 떠올리면서도 인물들은 절대 돌아갈 수 없단 걸 안다. 그래서 제법 의연하게 자신의 지난날을 응시하고 있다.

“넌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으려 하지, 그리고 그럴 수도 없을 거야. 진희와 함께할 때면 미주의 마음에는 그런 식의 안도가 천천히 퍼져 나갔다. 넌 내게 무해한 사람이구나.” “내게 무해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비록 한 단편 소설이지만 소설집 곳곳에서 우리는 곧 무해한 사람을 발견하게 된다.

그때의 나는 유약한 몸과 마음을 가져서 사람들에게 상처받으면 받았지, 상처를 줄 거라고는 생각이 미처 깊은 곳까지 닿지 않는다. 하지만 그토록 상처를 줄까 봐 겁이 났던 시절도 잠시, 기억을 떠올려 보면 나 역시 상처를 입히고 있었다.

저자는 일곱 편의 소설에서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야기와 보편적인 감정을 내밀하

게 묘사한다. 이야기 속 인물들의 세밀한 감정선을 그려가면서 소홀히 여겨지는 감상조차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되짚어간다. 소설집을 통해 저자는 막역하게 연결된 사이가 한순간에 멀어지는 사이로 변하는 단절의 과정을 속속들이 드러내면서 아프지만 바라봐야만 하는 감정을 담담히 풀어내고 있다.

무던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날카롭게 상처를 내는 일. 모순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무뎠서 상처를 입힌 것도 모른 채 지나가기도 한다. 이미 나 버린 상처는 어쩌면 치명상이 될지도 모른다. 해를 주고 싶지 않아도 알게 모르게 해를 주는 일이 부지기수인 삶, 우리는 언제까지고 줄곧 상처를 주고 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과연 부정할 수 있을까.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먼저 나부터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내게 무해한 사람도 그렇다. 무해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무해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무해한 사람이기를.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아 막연한 기다림일지라도 종국에 다다라서는 무해한 사람을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송민경 기자 (tilldawn012@skuniv.ac.kr)

이달의 전시회

어린 시절 추억과의 재회 - 스폰지밥의 우당탕탕 시간여행 展



배경음악이 잔잔하게 깔려있다. 적절한 배경음악과 다양한 볼거리가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한다. 징징이 조형물 옆으로는 전시회의 시작을 알리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를 지나 걸음을 옮기다 보면 쥐라기 시대로 돌아간 주인공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귀엽게 그려진 주인공의 모습에 웃음이 나오는 건 덤이다. 필자 또한 인증 사진을 촬영할 수 없어 캐릭터를 배경으로 여러 사진을 남겼다. 쥐라기 시대를 지나 전시회 안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서부 시대로 이동한 스폰지밥과 친구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선 만화의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는 비키니 시티 주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전시장 곳곳에는 스토리 구성에 빠질 수 없는 풍풍 부인, 집게 사장, 진주, 인어맨과 조개 소년의 모습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이들은 전시의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며 재미를 더한다. 전시의 후반부에는 다람이의 집이 나온다. 이곳은 마치 실제 다람이의 집에 들어가 있는 듯한 착시를 불러일으킨다. 이를 배경으로 인증 사진을 남기는 관람객의 모습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타임머신을 타고 시대를 여행하는 콘셉트로 꾸며진 전시 '스폰지밥의 우당탕탕 시간여행 展', 시대별로 꾸며진 주인공의 모습에 관람객 내내 '귀엽다'는 말이 절로 나왔다. 다만, 티켓 가격에 비해 관람 구간이 짧았다는 점과 오로지 '포토존' 위주로 꾸며진 전시구성에서 아쉬움을 느꼈다. 관람객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돼 있었더라면 더욱 재미있는 전시가 완성되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어린 시절 즐겨보았던 스폰지밥, 그 추억과 재회하고 싶다면 이 전시를 관람해 보길 바란다.

이예은 기자 (kosoyi@naver.com)

- 전시기간 : 2023. 08. 12(토) ~ 2023. 12. 31(일)
· 관람시간 : 오전 10:30 ~ 오후 8시 (오후 7시 입장 마감)
· 장 소 : 용산 아이파크몰 6층 팝콘D스퀘어 대원 뮤지엄
· 가 격 : 일반 15000원, 청소년/어린이 13000원

이달의 영화

달갑지만은 않은 추석, 그럼에도 - 올해의 가족 (2018)



인 가족들의 이야기다. 할아버지 제사를 맞아 묘소를 찾은 동주, 할머니가 신앙심 때문에 기독교 묘지로 들어간다고 선언하자 당숙과 할머니의 싸움이 시작된다. 이를 발단으로 매해 홀로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엄마까지 합세하여 당숙과 대치하게 된다. 제사 음식을 뒤로 한 채 고성이 오고 가며 동주 가족 모임 풍경은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한다.

영화가 가진 가장 큰 힘은 젊은 세대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풀어낸 연은 '공감'이다. 갈등의 주체는 어른 세대에 있지만, 영화는 20대 장손인 동주의 시선으로 전개된다. "오랜만에 모였는데 싸우지 말고 재미있게 지내면 안 돼요?" 계속되는 다름에 당숙이 장손인 동주에게 의견을 묻자, 멋지게 화를 내며 당숙에게 받은 용돈을 뿌리는 동주, 하지만 이는 곧, 익살스러운 효과음과 함께 동주의 상상임을 보여준다. "전, 잘 모

르했습니다" 현실은 뜻자리 앞 잔디를 뚫으며 무안한 웃음을 짓는다. 아직은 어른들의 세상처럼 보이는 가족 일에 어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올해의 가족'은 작년 명절에 본 거 같은, 익숙하지만 계층적인 이야기를 통해 관객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마냥 즐겁지만은 않지만 그럼에도 가족, 무엇이 이들을 올해의 가족으로 만든 건지 영화를 통해 알아보자. 이야기뿐만 아니라 푸릇하고 아름다운 미장센, 익살스럽고 사실적인 배우의 연기가 재미있는 작품이다. 영화는 서경대학교 미디어스퀘어 대상 작품 태그에서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손기현 수습기자 (hsrfgust25@gmail.com)

이달의 음악

기다림과 재회의 다양한 형태

유독 길었던 올해 추석 연휴, 그동안 못 보던 가족들을 볼 기회가 생겼다. 가족과의 애절한 재회를 포함하여, 세상에는 대체로운 형태의 기다림과 재회가 존재한다. 지친 일상 속에서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멀어진 이를 다시 만나고 싶은 학우들을 위로하기 위해 다양한 대상과의 재회가 담긴 노래들을 담아 봤다. 다가오는 가을과 어울리는 따뜻한 감성의 곡들이니 한 번쯤 들어보길 권한다.



♪ <시간의 바깥> - 아이유

"기다려
기어이 우리가 만나면,
시간의 테두리 바깥에서
과거를 밟지 않고 선다면
숨이 차게 춤을 추겠어
...
긴긴 서사를 거쳐
비로소 첫 줄로 적혀
나 두려움 따윈 없어"

8년 전, '너랑 나' 뮤직비디오에서 아이유는 시간을 건너 남자 주인공을 만나러 가고, 8년이 지난 '시간의 바깥'에서는 시간을 초월한 '바깥', 즉 초현실적인 세계에서 동일한 인물을 만난다. 두 주인공은 기다림 끝에 시간의 제약을 넘어 재회하게 되고, 두려움 없이 지금을 만끽한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맞이하는 지금을 소중하게 여기지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현재를 즐기며 살아보자.



♪ <그때 그 아이들은> - AKMU(악뮤)

"그땐 함께 영원할 것만 같았지
어렸던 세상을 걸어내면
비탈지던 저 좁은 길가로 흩어져
화려하고 순수했던 꿈
너의 두 손에 넘쳐났던 그 한 움큼은
꼭 쥐고 살아가길"

누구나 어렸을 때 간직했던 순수한 꿈이 있을 것이다. 어릴 적 순수하고 해맑게 가졌던 꿈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자연스레 잃게 된다. 학창 시절 친구들과 가졌던 추억 또한 마찬가지다. 친구들이 세상의 전 부였던 그 시절이 무색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각자의 삶에 바빠 연락이 끊겨 멀어지곤 한다. 삶에 지쳐 힘들다면 친구들과 함께했던 지난날의 추억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 그때의 순수한 나를 만나, 잃어버렸던 꿈은 되찾는 기회가 될 것이다.



♪ <바람개비> - 세븐틴

"먼 훗날 너에게 미안하지 않게
늘 난 기다릴래
그래 그제 더 맘 편해
오는 길을 잃어 오래 걸린대도
돌고 돌아 내게 다시 찾아와주면 돼
먼 훗날이라도"

들뜬에 혼자 서서 외로이 돌아가는 바람개비처럼, 헤어진 연인이 다시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쓸쓸함의 감정이 담긴 노래다. 숨 가쁘게 바쁜 세상 때문에 멀어졌지만, 돌아오기까지 오래 걸리더라도 기다려 주겠다는 마음 아프고도 따뜻한 가사가 인상적이다. 아픈 감정을 담담하게 풀어낸 가사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또 다른 이에게 공감과 위로를 선물해 준다.

유지우 수습기자 (milkyway_85@naver.com)

이달의 장소

100년 역사와의 재회 - 광화문 월대



고 그 위에 철로를 깔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의 의의가 있다.

광화문 월대는 왕의 행차는 물론 외국 사신 영접 등 중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사용했던 곳이다. 그러나 약 100년 전 일제가 콘크리트를 사용해 철로를 깔면서 파괴됐다. 전자 철로는 1966년 세종로 지하도가 생기면서 사라졌다. 이 철로 아래에서는 월대 기단석을 비롯해 조선시대 군무를 맡아 보던 삼군부, 당시 최고행정기관인 의정부의 외형량터 추정 건물지가 발견됐다. 월대의 전체 규모는 길이 48.7m, 너비 29.7m로 파악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이번 발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 11월까지 광화문 월대의 원형을 복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월대를 덮었던 전차선로 유적은 일부가 경기의 왕시 철도박물관으로 옮겨져 보존된다. 지난 9월에는 월대 남쪽 끝을 장식했던 '서수상'이 100여 년 만에 돌아오며 광화문 월

대 복원에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서수상은 삼성그룹 고 이근희 회장 유족 측이 문화재청에 기증했다.

이번 월대 발굴 조사 현장을 취재하며 무심코 지나가던 서울 한복판에 100년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몽글한 기분이 들었다. 우리의 역사는 멀리 있지 않다.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공존하는 광화문 월대. 이제는 우리 후손들이 지켜야 할 모습이 아닐까? 이번 주말 그 현장을 직접 찾아 지난 100년간의 역사와 재회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난 만큼 분명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

이예은 기자 (kosoyi@naver.com)

위치: 서울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문의: 02-3700-3901

이달의 스포츠

HL 안양, 여덟 번째 아이스하키 우승 도전... 비인기 종목의 끝없는 시도

지난 9월 16일 HL 안양이 레디글스 핫 카이도와의 원정경기를 시작으로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통산 8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HL 안양은 지난 시즌 코로나로 인한 2년 7개월여의 공백을 딛고 정상에 올랐다. 무엇보다 은퇴한 멤버들의 공백을 짚은 선수들이 잘 때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HL 안양이 참가한 아시아리그는 한국과 일본의 실업팀이 아시아 아이스하키 최정상을 가리는 다국적 리그다. 올해는 일본의 히가시후카카도 크레인스가 불참해 지난 시즌보다 1개 팀이 줄어든 5개 팀으로 운영된다. 진행 방식은 정규리그 32경기를 치른 뒤 상위 2팀만이 5전 3승제의 파이널을 통해 챔피언이 된다.

HL 안양의 간판 공격수였던 김기성 선수가 은퇴한 자리에는 북미와 유럽 리그를 경험한 이종민 선수가 새롭게 나선다. 이종민은 스피드와 스킵이 뛰어난 선수로, 중학교 시절 캐나다로 유학, 주니어 A 명문리그인 BCHL에서 활약하던 유망주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스웨덴 하부리구에서 뛰다 HL 안양 유니폼을 입고 아시아리그에 데뷔하게 됐다.

미국 프로리그 ECHL에 진출했던 신상훈 선수도 복귀했다. 지난 시즌 ECHL 에틀렌타 글라다에이타에서 뛰며 70경기 30골 22어시스트로 맹위를 떨친 신상훈 선수는 북미 리그 경험이 쌓이며 특유의 스피드와 폭발력이 강화됐다는 평이 있다.

수비라인에는 병역을 마치고 복귀한 최진우 선수와 지난 시즌 도중 무릎 부상을 당했던 김원준 선수가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돌아왔다. 최진우 선수의 강력한 플레이와 김원준 선수의 뛰어난 공수 밸런스를 겸비한 HL 안양의 탄탄한 수비라인 또한 주목할 포인트다. 골문은 변함없이 맏 돌턴 선수가 지키며 이연승 선수와 김기완 선수가 뒤를 받친다.

백지선 감독은 선수들에게 "Don't let them hunt you. Hunt them instead." 라고 말하며 선수들에게 투지를 심어준다. 상대가 우리를 잡기 위해 사냥에 나서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들을 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더불어 '에너지와 창의적인 플레이가 넘쳐나 여러 부분에서 팬들이 만족할 수 있는 즐거운 하키를 보여줄 것이다. 저돌적으로 빠르게 퍽을 사냥하는 맹수와

같은 모습으로 우승 트로피를 쟁취하겠다."고 포부를 내세웠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로 대한민국 아이스하키는 어려움에 부딪혀 있다. 팀이 계속해서 해체되고 사라지면서 힘을 잃고 있는 것이다. 올림픽이 끝나고 5년이 지나는 동안 세 팀이었던 실업팀은 어느새 한 팀만 남았다. HL 안양이 국내 유일한 남자 실업팀이다. 외국인 귀화 선수는 7명 중 6명이 은퇴하고 몇 돌턴 선수만 남았다.

팀이 더 생겨나 자국 리그를 개최하게 된다면 훨씬 치열한 경쟁으로 좋은 선수가 배출되어 세계무대에서도 훌륭한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올림픽을 보며 꿈을 키운 유소년 선수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들이 선수 생활을 이어갈 팀이 필요하다. 아이스하키가 무너지지 않고 비상하기 위해 많은 관심이 간절할 지금이다. 한편 2023~24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는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진행된다.

한채린 수습기자 (hanchaerin@skuniv.ac.kr)



★가을축제★



★청야체전★

